

우리학교 학과 및 대학원 명칭 변경

트렌드에 맞춰 명칭변경, 교육과정 개편도 함께

이현정 기자 pr3417@knu.ac.kr

언론정보대학원이 오는 3월부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 명칭이 현재 대학원 강좌 내용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미디어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한 명칭 변경과 더불어 교육 콘텐츠 혁신도 함께 이뤄진다.

해당 대학원의 명칭 변경은 1996년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언론정보대학원으로 변경한 이후 25년 만이다. 이상원 언론정보대학원장은 “과거 미디어 산업은 신문·방송 등 언론 중심이었다면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더 이상 ‘언론정보’가 미디어 산업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터넷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산업의 등장으로 미디어 산업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며, “트렌드에 맞게 대학원 명칭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대학원 명칭 역시 시대의 흐름대로 유동적인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명칭 변경과 더불어 트렌드에 맞는 전문가 트랙과 교육과정 개편도 이뤄진다. 2021년 1학기부터 3개의 전문가 트랙이 도입된다. 전문가 트랙은 ▲1인 미디어 전문가 트랙 ▲데이터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트랙 ▲K-Culture 전문가 트랙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트랙에 개설된 3과목을 이수하면 졸업 시 전문가 과정 이수 증명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원장은 전문가 트랙 개설이라는 교육 콘텐츠 혁신 계획을 ‘수요



OTT 산업의 등장으로 미디어 산업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

와 공급의 일치’로 설명했다. 전문가 트랙 운영은 최신 미디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개편이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수업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학생의 수요에 맞게 대학원이 공급해 주며,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야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칭변경과 이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 후, 원생 모집 지원자 수가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등록을 확정하는 학생 수를 봐야겠지만, 이러한 대학

원 전반의 변화가 총원율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언론정보대학원의 명칭변경에 이어 3월 1일부터는 양 캠퍼스에서 3개의 학과·명칭 변경이 이뤄지기도 한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정경대학 ‘언론정보학과’는 ‘미디어학과’로, 국제캠퍼스(국제캠) 생명과학대학 ‘유전공학과’와 ‘한방재료공학과’는 ‘유전생명공학과’와 ‘한방생명공학과’로 변경된다. 언론정보학과 이종혁 학과장은 명칭 변경 배경에 대해 “현대 사회가 미디어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미디어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교육과정 개편 때 학과·명칭 변경에 맞춰 ‘미디어 경영’, ‘미디어 심리’, ‘매체 철학’ 등 미디어 중심의 과목들을 대거 신설했다”며, “단순한 기사 작성, 영상 편집 학습이 아닌 미디어 자체와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방재료학과는 명칭 변경과 관련해 새로운 강의를 개설했다. 해당 학과 행정실은 “명칭 변경으로 교과과정이 완전히 개편된 것은 아니지만 ‘한방신소재학’과 ‘한방생명공학실습’ 수업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한방생명공학과’ 이름에 걸맞

는 새로운 강좌를 신설한 것이다. 이어 “두 강좌 모두 명칭 변경에 대비해 작년부터 시행된 과목”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생명과학대학 행정실은 “트렌드를 수용해 학과·명칭과 교육 내용의 변화는 늘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학과·차원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에는 일반대학원 전자·전파공학과가 전자공학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해당 학부는 2017년부터 전자공학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학부 명칭 변경 1년 후에 대학원 역시 전자공학과로 변경한 것이다.

명칭 변경을 넘어 하나의 학부가 두 개의 학과명으로 개편된 경우도 있었다. 서울캠 문과대학 소속 영어학부는 2018년을 기점으로 영어·영문학과와 응용영어통번역학과로 개편됐다. 기존 영어학부는 입학 후, 통번역과 영문학, 영어학 수업을 수강 후 트랙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보다 심도 있는 수업의 필요성을 느껴 개편됐다. 응용영어통번역학과 행정실은 “기존 영어학부 과정 내의 세 범주를 응용언어학적 시각에서 통합시켜 전공성을 심화시키는 것이 학과의 목표”라고 전했다. 영어영문학과 박해일 학과장 교수는 “영어학부 때 영어학·영문학 전공선택 과목이 현재 전공필수·전공기초 과목으로 개편됐다”고 전했다. 이어 “응용영어통번역학과의 신설로 영어학부에서 다뤘던 통번역 관련 과목은 다루지 않고, 전공 명칭에 알맞은 강좌가 개설됐다”고 덧붙였다.

2021년 학군사관 후보생 (예비후보생) 모집안내

선발일정

선발기간 : 21. 3. 2.(화) ~ 21. 7. 16.(금)

지원서 접수	필기평가	1차합격자발표	면접평가	신체검사
21. 3. 2(화) ~ 21. 4. 9(금) 까지	4. 17.(토)	5. 7.(금) / 14:00	5. 24.(월) ~ 6. 18.(금)	5. 10.(월) ~ 7. 2.(금) 까지 *결과접수 : 7. 2. 한
1차 합격자 인터넷 신청(신원조사)		체력인증서 서류제출	신원조사(대상 : 1차 합격자)	최종합격자발표
5. 10.(월) ~ 5. 18.(화)		6. 18.(금) 한	5. 20.(목) ~ 6. 18.(금)까지	7. 16.(금) / 14:00

선발인원 : 남 0000명, 여 0000명 담당자 : 각 대학 학생군사교육단에 문의

※ 현 상황(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관련 선발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조정시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 : “학군사모집안내”에 탑재 예정
- 선발일정 관련 지속적인 확인 바랍니다

※ 체력인증은 현 상황관련 출장평가(4월 이후) 가능(해당 대학교 학군단에 문의)
※ 21년 학군사관 62, 63기 모집 선발계획(바로가기)